갤러리 색즉시공

마음은

마음은
마음은
쓰면 쓸수록
커진 답니다.

마음은
마음은
내면 낼수록
좋아 진답니다.

드러내는 마음
무심한 마음
…
잘 살펴야겠습니다.

글·그림 희상 스님
〈유연선원 주지〉

위 그림과 글은 책 〈당신을 바라봅니다 · 희상 저 · 담앤북스〉에 있습니다.

정진 그리고 행복한 가정

자재화보살의
바라밀일기

10년만에 돌아온 고향 조계사

"엄마 이렇게 추운 날에는 집에서 하시면 안돼요? 감기 드시면 어쩌시려구요."

"할머니 엄마가 이거 붙여 드리래요."

작은 놈 큰 놈, 손주들이 핫팩을 들고 나와 배와 등에 붙여줍니다. 멋진 청년이 다된 손주들이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추운 날, 절에 가는 나에게 주욱 서서 배웅하는 식구들의 모습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핫팩의 따스함이 온몸으로 퍼지며 아이들과 식구들의 사랑이 전해옵니다. 이렇게 다시 절을 찾아 기도정진을 시작한 지가 열 달이 됐습니다.

80년대 중반 조계사 기초교리 1기생으로 시작된 저의 불교공부는 십 오륙 년 동안 훌륭한 도반들과 함께 참회하고 정진하며 포교하고 봉사하며 큰 행사 때는 화주도 하며 여기저기 많은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 일 번지를 일으키는데 힘을 보태려고 노력했습니다. 관음회에서 잠깐씩 일도 도우며 행복한 신행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종단 사태로 인해 어수선한 절 분위기에서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처를 우이동 도선사로 옮겨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저의 신행생활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세계여행, 국내여행, 등산 등으로 돌아치기를 10여 년. 시내에 나오면 조계사 길 건너편에서서 삼배하고 지나가는 정도의 신행 생활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던 날 혜민 스님이 하시는 조계사 힐링법회에 참석했다가 2시 관음기도하시는 스님의 염불소리에 끌려 법당 뒤편에 앉아 있노라니 마치 제가, 떠돌던 탕아가 다시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 여 년 만에 나오니 옛날 도반들은 드문드문 보이고 모두가 낯설었지만 기도를 따라하면서 다시 신심이 일기 시작 했습니다. 무임승차로 마무리 기도를 끝내고 이제는 당당하게 111일 기도에 입재해서 빨갛고 예쁜 기도 책과 백팔염주도 받고 법당 앞편 부처님 계신 곳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전생과 현생에 지은 심악업 모두 참회합니다. 무수한 전생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지어온 온갖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형식도 옛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화엄성중기도에 104위 신중님들을 일일이 모두 부르며 절을 했습니다. 신묘장구다라니 108편은 기본이랍니다. 화엄경약찬게는 21편, 108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두들 기도정진 하기에 옆 사람과 얘기도 잘 나누지 않을 정도로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하며 그들 속에 끼어서 작년여름을 땀범벅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도를 끝냈습니다. 얼마나 더웠던지 기도를 끝내고 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전철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땀 냄새가 날까봐 한 귀퉁이에 서서 집에 오곤 했습니다. 기도를 회향하고 나니 몸무게가 4키로나 빠져 원하던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고 그 동안 같이 기도한 도반들과도 친하게 되어 서로 격려해 주면서 다시 2차 기도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회향 후 사업하는 아들이 힘들었던 큰일들이 알게 모르게 풀려있었습니다.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는 예전으로 돌아가 평온을 찾았습니다. 다시 2차 기도중이지만 손자들의 학업성취 발원이 이뤄져 합격의 기쁨도 함께 했습니다. 다른 도반들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리본을 붙인 큰 난 화분과 떡 등 많은 회향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엄마 할머님들 모두 모인 도량인 것 같습니다. 모든 자손들이 잘되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회와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며느리의 태교 사경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도를 해 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저는 아들에게 기도법을 가르쳤습니다. 본인이 직접 절에 가서 신도카드번호 대고 입재비도 내고 공양물도 올리고 신도들과 동참해서 기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들은 불교서적을 구입해 열심히 읽고 배우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찍 일어나 출근 전에 기도하고, 쉬는 날에는 먼저 절에 가서 삼배라도 하고 다른 용무를 봅니다. 출강하지 않는 날이나 요즘 같은 방학 때는 아침 일찍 식사준비를 다 해놓고 "어머지 저 절에 다녀옵니다."하고 근처에 있는 화계사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소중하고 고마운 내 며느님. 제가 세상에 없더라도 부처님 품안에서 살아 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종교가 달라 가족 간에 불화가 잦은 이웃들을 보며 저는 처음 며느리를 선 볼 때 아예 이런 시어머니의 결혼조건을 내놨습니다. '불자여야 한다. 아기를 가지면 불교식으로 태교를 해야 한다.' 열 달 동안 노력해서 복과 지혜가 구족한 아이를 낳아 평생이 행복해 진다면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요즘 처녀들이 들으면 어느 시대 시어머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아우성치겠지만 제가 석성우 스님이 하시는 불교식 태교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갖기 전에 이런 태교를 할 수 있게 누구라도 도와줬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제 손자들에게는 꼭 불교식 태교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인지 저의 며느리는 제 말에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형편껏 부모님 힘드시지 않게 해라. 나는 불자라 밍크코트다 뭐다 이런 허례허식 모두 거두고 하자"하고 아들이 다니던 대학 불교학생회 지도법사였던 법진 스님의 주례로 조계사 합창단의 축가와 축복 속에 전통불교식으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며느리에게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열 번 사경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고 이어서 법화경을 한번 사경하게 했습니다. 사경한 것을 소중히 모시고 제주도 황금사리대탑에 봉안을 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보는 손자라 집안은 온통 환희로움으로 행복 가득했습니다. 큰 손자가 채 돌도 되기 전에 연년생으로 작은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큰아이 키우느라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법화경을 한 번 더 사경하고 둘째 손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부처님의 가피 속에 잘 자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당신만 있는 손자 인양 유치원, 미술학원, 수영장, 태권도장, 음악학원, 기원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의 기회를 주며 동네가 시끄럽게 행복한 마음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손자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외가댁과도 한 달에 한 번씩 온 식구들이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혹은 중간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며 사돈사이가 아닌 형님과 동생, 언니와 동생사이처럼 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돈은 서로 멀리 살수록 좋다고 했는데 서로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이로 산다는 것도 큰 축복인 듯합니다. 70이 넘은 지금도 월요일마다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절에 와서 백팔배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불행이 자기 자신만은 비켜가길 바라고 또 나름대로 부푼 꿈을 꾸어봅니다. 하지만 어떤 소망이나 설계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진지한 참회의 시간을 갖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회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양심과 진면목을 혼자서만 비추어 볼 수 있는 자기의 눈을 뜨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자기를 돌이켜 볼 줄 알기 때문이겠지요. 지난해 이루지 못한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내 안으로부터 나를 방해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찾아내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 새해는 진정한 새해로 내게 찾아 올 것입니다. 새해에는 먼저 진심 참회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수히 많은 장애와 회의와 시험과 좌절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조그만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에서 화합하고 남과 척을 짓지 않고 부지런한 생활 할 것을 새해 벽두에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행복한 갑오년이기를 두 손 모아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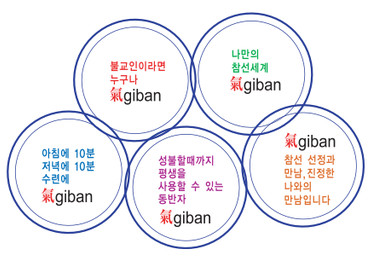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기 : 직경 10mm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